

# 2020년 대변인 소관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 1. 제안경위

- 본 예산안은 2019년 11월 1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5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 예산안 내용

### 가. 세입예산

- 해당사항 없음.

### 나. 세출예산

- 세출예산 총 규모는 17억 3천6백만원이며, 이 중 사업비는 15억 1천만원, 행정운영경비는 2억 2천6백만원임.

〈표1, 2020년도 대변인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 예산	2020 예산안	증감
일반 회계	계	1,844	1,736	△108
	행정운영경비	225	226	1
	사업비	1,619	1,510	△109

### 3. 검토 의견

#### 가. 개요

- 대변인 소관 세입예산은 없음.
-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1억 8백만원(5.9%)이 감액된 17억 3천6백만원이며, 이 중 사업비는 15억 1천만원, 행정운영경비는 2억 2천6백만원임.

〈표2, 사업별 예산 증감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	2020안	증감	증감률
총 계	1,844	1,736	△108	△5.9%
사 업 비	1,619	1,510	△109	△6.7%
보도기획 기능 강화	854	869	15	1.8%
시정보도 간행물 구독 및 언론소통 강화	451	466	15	3.3%
시정관련뉴스 정보제공 및 보도기능 강화	403	403	-	-
시정보도 지원체계 구축	765	641	△124	△16.2%
방송모니터실 운영	106	110	4	3.8%
방송영상 및 사진자료 제공	62	71	9	14.5%
보도방송관리시스템 유지보수	97	108	11	11.3%
출입기자실 운영 및 취재지원	145	145	-	-
해외미디어 취재지원	200	200	-	-
보도지원관리시스템 유지보수	155	7	△148	△95.5%
행정운영경비	225	226	1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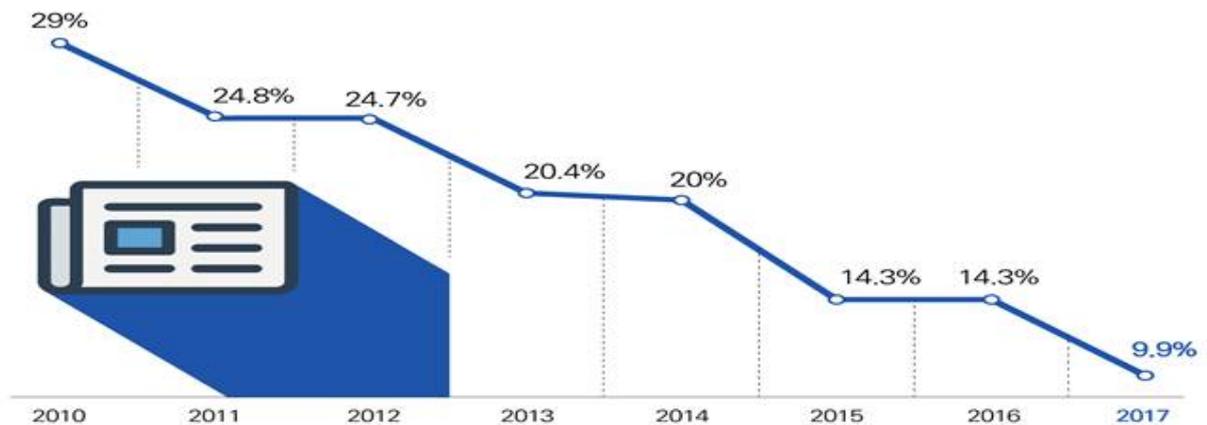
## 나. 주요사업 검토의견

### (1) 시정보도 간행물 구독 및 언론소통 강화(사업별 설명서 13쪽)

- 실·본부·국에서는 업무관련 보도사항 확인을 위해 정기 및 부정기간 행물을 구독하고 있으며, 구독료 인상으로 전년대비 3%인 1천5백만원이 증액된 4억 6천6백만원이 편성됨.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조사한 종이신문 정기구독률을 살펴본 바, 2010년 29%이던 구독률이 2013년 20.4%에서 2017년 9.9%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표3, 종이신문 정기구독률 추이〉



(출처: 한국언론진흥재단)

인터넷 단말기의 급속한 보급과 인터넷 뉴스 채널의 다양화, 무료 인터넷 뉴스 서비스 그리고 실시간 뉴스 이용의 편리함 등이 종이신문의 구독이탈을 가속화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간행물 구독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실·본부·국 간행물 구독에 있어 불필요한 수요를 줄여야 한다는 우리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언론담당관에서는 각 부서별 간행물 구독에 따른 특정 매체 편중과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전부서의 신문구독을 통합 관리하고 있다고 하나,

대부분의 직원은 신문보다는 포털을 통해 검색 하거나 직원 내부시스템인 행정포털의 방송뉴스, 신문보도, 보안뉴스를 활용하고 있고, 대변인은 이를 운영하기 위해 <표5>와 같이 뉴스 DB구축 및 뉴스 콘텐츠 구매하고자 약 5억 9백만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

〈표5. '19년 뉴스DB구축 및 콘텐츠 구입 비용〉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세부내용	예산	내용
1	시정관련뉴스 정보제공 및 보도기능 강화	뉴스서비스 수신료	308	시정보도자료제공
2	방송모니터실 운영	방송뉴스 저작권료	62	KBS 등 9개사 저작권
3		모니터링 자료구입	4	9개사 외 인터넷, TV등의 인터뷰 기사 스크랩을 위한 속기료
4		디지털방송모니터링 시스템 유지보수	38	방송저장+스크랩+자막 제공
5	보도방송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뉴스저작권료	79	매체 24종
6		보도방송관리시스템 유지보수	18	스크랩마스터
합계			509	

시정보도 간행물의 매년 구독수는 <표6>에서 보듯이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며, 오히려 일간지는 2017년 15,846부에서 144부 늘어난 15,990부를 구독하는 바, 실·본부·국의 의견을 반영하기 보다는 관례적으로 간행물을 구독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표6. 최근 3년 구독실적〉

구분	2017	2018	2019.9.30.기준
합계	27,058	27,197	22,230
일간지	15,846부	15,990부	13,164부
주간지	10,553부	10,597부	8,588부
가판	13종	13종	13종
월간지	632권	584권	461권
기타	14권	13권	4권

대변인실은 내부시스템을 통해 이미 방송과 신문 뉴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종이신문을 유지하기보다는 수용자인 직원들의 정보습득 방법과 원하는 방식에 대한 점검을 통해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방송영상 및 사진자료 제공(사업별 설명서 25쪽)

- 대변인은 시정관련 각종 행사, 사건사고, 기자 설명회 등 사진 자료를 언론사에 제공하는데 카메라, 렌즈, 노트북이 노후화되어 교체하고자 전년대비 13%인 8백만원이 증액된 7천1백만원이 편성됨.

〈표6. 대변인 영상 및 사진 장비 물품 현황〉

구분	정사진용 디지털카메라 (렌즈포함)	동사진용 ENG카메라	동사진용 동영상 편집기
갯수	4대	2대	2대
구입연도	'11년 2대, '17년 2대	'08년 1대, '09년 1대	'12년 1대(노트북) '17년 1대(데스크탑)
내구연한	8년	9년	5년(데스크탑), 6년(노트북)
구입계획	2020년 2대	2020년 이후 검토	2020년 1대(노트북)

- 물품 내용연수는 조달청 고시에 따르고 있으며, 내구연한(9년)이 경과한 동사진용 ENG카메라의 경우 아직은 지상파 방송송출 품질로 촬영이 가능하고 보수를 통해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이와 같이 장비 성능이 양호할 경우 내용연수 경과 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자산 및 물품 취득을 추진하도록 하도록 해야 할 것임.

- 한편, 서울시에서는 매월 각종 문화행사가 다양하게 개최됨에도 불구하고 직원 내부시스템에 업로드되어 활용되는 정사진 자료의 문화행사폴더에는 “2018.2.8. DDP스케이트장” 이후로 업데이트된 자료가 없고 조회수도 낮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업데이트가 원활하지 않고 활용도가 낮은 사유를 분석하고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3) 보도방송관리시스템 유지보수(사업별 설명서 29쪽)

- 일간지 24개 매체의 뉴스콘텐츠를 구매해 전자스크랩하고, 이를 서울시 전 직원들이 공유하도록 내부전산망에 서비스하는 사업으로 보도방송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를 위해 1천1백만원이 증액된 1억 9백만원이 편성됨.

그 중 '19년 신규 사업으로 기자들의 언론 취재활동을 지원하고자 시정 보도자료와 사진·영상 등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배포하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보도지원시스템”과 일부 업무(보도자료, 해·설명자료 업로드)가 중복되어 발생하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등 시스템의 추가개발로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증액되는 것임.

### (4) 해외미디어 취재지원(사업별 설명서 37쪽)

- 해외 유력 언론매체를 대상으로 서울시의 우수한 정책과 매력에 대하여 특집보도를 유치하고 외신별 맞춤형 취재지원 제공으로 서울 관련 기사 노출 확대 및 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억원을 편성함.

동 사업은 매년 같은 업체와 계약을 한다는 우리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19년부터 ① 실시간 외신 모니터링, ② 외국어로 번역된 보도자료 배포, ③ 서울주재외신 프레스투어, ④ 맞춤형 취재지원, 서울주재 외신과의 네트워크 강화 등 총 4개의 사업 중 ① 실시간 외신 모니터링만을 용역으로 추진하고 나머지는 직접 집행하고 있음.

〈표7. 해외미디어 취재지원 과업범위 변화〉

<2018년>		>		<2019년>	
용역 대행	외신모니터링	⇒	대행	외신모니터링	
	보도자료 번역·배포		직접 사업	보도자료 배포	
	인터뷰, 프레스투어			인터뷰, 프레스투어	
	취재지원·네트워크 교류			취재지원·네트워크 교류	

- 〈표8〉에서 보듯이 전문 홍보업체에 의해 추진되어오던 사업을 해외 언론팀의 자체 인력으로 번역검수, 현장에서 통역 지원 등 서울시 우수정책을 전 세계에 홍보하고 도시매력이 효과적으로 보도될 수 있도록 노력한 바, 취재지원 등을 통한 보도실적이 12.9% 증가, 프레스투어 72.7% 증가, 외신 맞춤형 보도자료 제작·배포 2.3% 증가, 외신기사 모니터링 2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8. 최근 3년간 실적 현황〉

연도	취재지원 등을 통한 보도	시장단 인터뷰 추진	프레스투어	외신 맞춤형 보도자료 제작·배포		외신기사 모니터링
				외국어	국문	
2017년	498건	27건	8건	89건	687건	1,451건
2018년 (10.31기준)	1,017건	29건	11건	342건	783건	2,827건
2019년 (10.31기준)	1,148건	19건	19건	350건	668건	3,565건
전년대비 증감율	12.9%	△34.5	72.7%	2.3%	△14.7%	26.1%

- 장기적으로 직접 집행을 통해 직원들이 현장 동행 기회가 많아지면 각 언론사와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며 용역사를 통하지 않아도 다양한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고,

또한 용역보다 직접 수행일 때 각 분야의 사업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용역과 직접 수행의 성과 차이는 최소 2 ~ 3년간 추이를 지켜 봐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市출입기자단 프레스투어(비예산)

- 대변인실에서는 기자회견이 아닌 현장을 통해 정확하게 시 정책을 전달하고자 市출입기자단 대상 비예산으로 프레스투어를 진행하고 있음.

〈표9〉에서 보듯이 최근 3년, 市출입기자단 프레스투어가 매년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기자들과 직원들은 별도의 시간을 할애하여 현장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임.

〈표9. 최근 3년간 실·국·본부별 프레스투어 현황〉

1) 최근 3년간 실·국·본부별 프레스투어 진행현황					
[2017.01.01 ~ 2019.09.30]					
실국명	2017	2018	2019	합계	건수율(%)
연도별 소계	24	9	9	42	100.0%

(출처: 제290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p.68)

시에 출입하는 기자는 162명인데 반해 보도건수는 프레스투어당 평균 18건〈표10〉으로 보도율이 낮은 바, 전반적으로 市출입기자단 프레스투어 개최 취지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대변인은 시 정책을 정확하게 알릴 수 있는 프레스투어를 실국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표10. 2019년 프레스투어 개최 현황〉

	담당실·국	제 목	자료게재일	보도수 (신문, 방송)
1	도시재생실	반세기 외딴 섬 '한강 노들섬' 숲 어우러진 음악섬 재탄생	2019.9.18.	33
2	문화본부	서울시, 지하 35m 녹사평역 '정원이 있는 미술관' 탈바꿈... 14일 개장	2019.3.14.	10
3	문화본부	서울시 '돈의문박물관마을' 근현대 100년 살아있는 참여형 공간 새단장	2019.4.3.	14
4	문화본부	서울에 남아있는 유일 한국 전통정원 '성락원' 시민 개방	2019.4.23.	26
5	서울도서관	대형 창고가 12만권 헌책 보물창고로... 서울시 <서울책보고> 개관	2019.3.27.	17
6	공공개발기획단	서울시, 김구 등 독립운동가 7인 잠든 '효창공원' 100년 기념공원으로	2019.4.10.	23
7	문화재단	서울 문화비축기지 5월 내내 서커스 축제 국내, 외 팀 총출동	2019.5.2.	12
8	디자인재단	서울시, 'DDP 5주년' 미공개 장소와 비하인드스토리 공개	2019.5.23.	10
9	도시공간개선반 디자인재단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D-2일... 미리 만나보는 관전 포인트	2019.9.5.	25

(출처: 제290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p.69)

## 다. 종합 검토의견

- 2020년도 대비인 소관 세출예산안은 2019년 예산 18억 4천4백만원 대비 5.9%인 1억 8백만원이 감액된 17억 3천6백만원이 편성됨.

일간지 및 가판 구독료 인상, 일부 방송사 저작권료 인상, 노후된 카메라, 렌즈, 노트북 교체, 신규 구축한 보도지원시스템과 기존 보도관리시스템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연계기능 추가 1천1백만원 외에는 전년도 대비 두드러지게 증감한 사업은 없음.

시민소통기획관의 '20년 홍보비는 전년대비 대폭 증액되고 홍보 건수도 약 3배 증가하는데 비해 대변인의 '20년 예산안은 오히려 감액되고 보도건수 목표치도 2019년 대비 1.1% 증가에 그친 것은 소극적인 설정인 바,

대변인실은 市출입기자단 프레스트어를 재점검하고, 기자들의 언론 취재활동을 지원하고자 보도지원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하였듯이 이들을 활용하여 적극적이고 전략적으로 시정정보 제공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